

장수군, 장마철 산사태 예방 총력 1인사업장 첫걸음 채용장려금 지원

취약지역 응급복구·사전 예찰 강화·신속한 주민 대피체계 구축

장수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와 사전 예찰을 강화하는 등 산립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현재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35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산립재난대응단 45명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상시 점검하며 배수로 정비와 위험요인 제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입차한 중장비를 활용해 절토지 응급복구를 실시하는 등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장수군은 무주국유림관리소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과 연계해 지역 내 13개소를 대상으로 산지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사



장수군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와 사전 예찰을 강화하는 등 산립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을 통해 산립피해지 7개소와 산지사방 3개소에 대한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임도 취약지역 3개 지구 16개소를 대상으로 구조개량사업도 병행하며 산립재해 예방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 예찰과 응급복구를 철저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효될 경우 산립 인접 마을을 대상으로 산사태 위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재난문자 발송과 마을방송, 대피소 안내를 실시하는 등 주민 대피체계를 즉시 가동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폭염 취약 농업인 건강 보호 집중

장수군, 온열질환 예방활동 실시

장수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6월부터 온열질환 예방요원 8명을 선발했으며 요원들은 지역 내 농작업 현장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폭염에 취약한 농업인 412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 휴식하기, 낮 시간에 농작업 자제 등 폭염 대응 핵심수칙을 안내하고 이온음료 분말과 쿨타월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배부하며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또한 여름철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도 함께 안내해 폭염은 물론 각종 농작업 안전사고와 감염병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장마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농업인들끼리 서로 무더운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실천하는 등 폭염 대응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소방서·무주군의회, 지역 안전 현안 간담회 가져

무주소방서가 8일 오후 제10대 무주군의회 의원들을 소방서로 초청해 지

역사회 안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주소방서가 8일 오후 제10대 무주군의회 의원들을 소방서로 초청해 지역사회 안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비해 무주군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소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무주소방서는 간담회를 통해 △소방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관내 재난 취약 요인 분석 △현장 대응 시스템 등을 의원들과 상세히 공유했다. 특히,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순시에서는 현장 대응단과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소방 드론 등 최첨단 재난 대응 장비를 직접 시연하며 실질적인 현장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손홍기 기자

무주군, 신규 직원 채용 시 1인당 연간 최대 600만원 지원

무주군이 1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관광형 1인 사업장 첫걸음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은 무주군로컬JOB센터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선정된 사업장에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신규 고용 3개월 차에 360만 원, 5개월 차에 24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등록된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1인 사업주이며, 신규 채용자와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상형 무주군로컬JOB센터장은 "첫걸음 채용장려금이 1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올해 무주군로컬JOB센터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사업 선정기업과 관광·특산물 가공 등 지역특화산업 관련 제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브랜드 기업 등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진안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2차 참여자 20일까지 모집

진안군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차 모집에서는 총 8개소를 선정하며,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

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다.

다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동일·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프랜차이즈, 주류판매업, 동일 업종 창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진안군청 농촌협력과 청장년지원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와 동시에 발표평가에 사용할 발표자료를 담당자 이메일(dadabk@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물 입점 소상공인 대상 AI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진안군은 진안고원물 입점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북 AI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한 'AI 활용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유통환경에 대응해 지역 소상공인의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온라인 판로 확대와 자생적인 마케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 과정으로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진안고원물 입점 소상공인을 비롯해 AI 활용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 소상공인 등 20명 이내다.

교육은 AI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1회차에서는 컴퓨터와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챗지피티(ChatGPT)와 제미니(Gemini) 활용 환경을 구축하며, 2회차에서는 스마트



폰 사진을 활용한 SNS 홍보 콘텐츠 제작을 배운다. 이어 3회차에서는 상품 소개자료와 판매용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작하고,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 실습을 진행한다.

특히 자신의 사업장과 판매 상품을 활용해 사업장 소개문과 상품 홍보 문구, SNS 게시물, 상품 소개자료,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게 된다. 교육을 마친 뒤 실제 온라인 판매와 홍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어 디지털 마케팅 역량 향상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무주군이 체계적인 지방세입 체납액 관리와 공정한 조세징의 실현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군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무주군의 연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28억 원 규모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4개월간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안내문 전달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를 단순 체납자와 고질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해 유형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납세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매각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반면, 생활고를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부서의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장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

장주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최근 도내에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장주소방서는 주취 상태를 이유로 한 혐의의 감경을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폭행 대응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급차 내 CCTV와 웨어러블 캠 운영 등 안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